

작은 고구마 인기해 해남 생산농가 한숨

짜먹기 편한 크기 선호... 인건비 늘고 소득은 감소

맛·영양 가장 좋은 크기 150~200g 가장 싸게 팔려

최근 소비자들 사이 작은 고구마를 선호하면서 생산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작은 고구마의 가격이 오를수록 농민들의 수익은 줄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과거에 비해 좁게 식재하면서 인건비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해도 수입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과거 가장 '맛 좋은 고구마'로 평가됐던 150~200g 크기의 고구마가 실제 시장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대로 팔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1박스(10kg)를 기준으로 고구마 1개 80g 크기가 2만1000원인 반면, 80~150g은 1만9000원, 150~250g은 1만50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최근 웰빙 바람의 확산으로 고구마 간식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단시간에 쉽게 손질할 수 있고 짜먹을 수 있으며, 먹기 편한 작은 고구마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작은 고구마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구마 생산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박진우 사무국장은 "80g 크기의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1.5배 정도 밀식을 해야 된다"며 "과거 중순을 25cm 간격으로 심던 것을 15cm 간격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는 고구마 우량묘 비용과 고구마 삼식하는 인건비가 1.5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밀식에 따라 수확량이 평균 30% 정도 줄어든다. 과거에는 3.3㎡

당 10kg이 생산됐지만, 작은 고구마는 고작 7kg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고구마산학연합회 기술전문위원 최동성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고구마를 찌를 때 전분함량과 β-아밀라아제 활성이 높을수록 당도가 높아진다"며 "결국 150~200g 크기의 고구마가 가장 맛있다"고 밝혔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허영욱 담당은 "적정 크기의 고구마를 소비하는 것이 맛과 영양도 좋고 생산농가도 돕는 길이다"며 큰 고구마의 구입을 권장하기도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여수 통해 세계가 하나로'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폐막

김충석 여수시장이 23일 오후 6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폐회식에서 여수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 세계 30개국 70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여수선언문을 채택,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했으며 이란 아즈드 등 9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세계화에 성과를 남겼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적한 여수 갯가길 함께 걸어요"

돌산공원~무술목 구간 1코스 공개 전국 첫 스마트폰 이용 정보 제공

여수 갯가길 1코스인 돌산공원~무술목(22.9km) 구간이 오는 26일 오전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민간이 주도해 조성된 이 갯가길에서 탐방객들은 대나무숲길, 갯벌, 비렁길 등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선인들이 걸었던 옛길도 일부 복원됐다. 특히 갯가길은 스마트폰 하나로

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갯가길은 24일 "1코스 개장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시스템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NFC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코스에 대한 모

든 정보와 구간별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움직임이 안내소다.

코스에 설치된 안내판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해당구간에 남은 코스길이, 자신의 운동량, 인근에 있는 휴게시설, 인근 교통정보 등을 제공해 준다.

또 탐방객이 서 있는 곳의 역사와

환경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개장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내고장 완도, 영어로 소개합니다"

완도교육청 '내고장 자랑 영어 표현력 경연대회' 눈길

전남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홍상)이 최근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완도를 소개하는 '내고장 자랑 영어 표현력 경연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는 최근 청산도 등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자신의 고장을 설명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교육지원청은 24일 "지난 22일 관내 중학생 53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 고장 자랑거리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소개하는 내고장 자랑 영어 표현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는 내 고장 자랑 영어퀴즈대회로, 완도교육지원청에서 제작·배포한 영문 책자 'Hello Wando'에 게재된 완도의 관광명소, 인물,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원어민이 들려주고 학생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부는 영



지난 22일 원어민 교사들 앞에서 완도의 자랑거리를 발표하고 있는 완도지역 중학생들.

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로 완도의 자랑거리를 영어로 소개하고 원주민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참가 중학생들은 참신한 소재와 짜임새 있는 내용 발표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원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진주(금일중 3년)양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내고장 관광 명소와 특

산품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애착심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4년 국제해조류 박람회만 아니라 완도관광 명소의 비경을 알리기 위해 완도를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본 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웃끼리 만납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읍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올 가을 지역축제는 특산물이 주인공

순천 갈대·신안 빨낙지 축제
해남 땅끝삼치&해오름축제
25~27일 프로그램 다양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이번 주말(25~27일) 순천, 신안, 해남 등 전남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가을 특산물을 주제로 축제를 연다.

오는 25일부터 순천에서는 갈대축제, 26일부터 신안과 해남에서는 빨낙지 축제와 땅끝삼치&해오름축제가 각각 개최된다.

순천시는 24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 및 동천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에 자매도시인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 사용한 유등 60여개를 동천변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60여개 유등은 동천 체험장인 순천교에서 순천철교 사이 포토존에 배치된다.

갈대축제 기간 장대공원에서는 '꽃·빛·물·별빛'을 테마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2013 순천하늘빛축제의 화려함을 볼 수 있고 동천변에서는 아름답고 독특한 문양의 진주 유등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순천만 갈대꽃, 정원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갈대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갈대 드림브릿지', '갈대섬', '순천만 철새정원', '갈대산악관', '갈대길 걷기대회', '추억의 풀베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신안군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압해읍 분재공원에서 빨낙지축제를 갖는다.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질 좋은 갯벌에서 잡은 신안 낙지는 연하고 담백하고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이다. 10월 말 전후에 잡히는 낙지는 살이 통통 올라 가장 맛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다살품이 풍어기엔

제, 활어 빨낙지 잡기체험, 낙지 비빔밥만들기, 빨낙지 심상가요제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땅끝삼치&해오름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땅끝 앞바다에서 풍어를 이루는 삼치 요리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끝 일출의 비경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것이다.

삼치는 잡자마자 바로 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를 하지만 땅끝마을에서는 바로 잡은 삼치를 회로 요리해 가을 별미로 부상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

목포시는 24일 "지난달 9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성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구역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석현동, 옥암동 일원 197만9000㎡(약60만평)이며, 6600세대, 1만98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일부

최소면적에 대해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혼용방식과 민관공동으로 출자법인(SPC)을 설립해 제3세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열람기간은 오는 11월7일까지 14일간으로 도시개발과를 방문하면 된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2367억원을 들여 2020년 준공된다.

/목포=고유석기자 yousou@